

“눈앞의 풍경 담은 사진에 마음 속 시의 언어 없어”

두번째 디카시집 ‘괜찮아’ 출간한 정순애 작가

따스한 눈길로 바라본 세상 재해석 ‘위로’ 독자들에게 전파
4부 구성 120편 넘는 사진·시 수록…30일까지 사진전도



보고피

글쎄진 세월 탓하지 않고
산등성이 아래 홀로 서 있는 그리움
붉게 짓무른 눈물방울을 흐르고 있다

사진작가로 출발했지만 꾸준히 사진과 시(詩)의 접목을 시도해온 정순애 작가(그린출판기획 대표)가 2021년 첫 시집 ‘바람에 흔들리고 비에 젖어도’를 펴낸 이후 4년만에 디카시집 ‘괜찮아’(그린출판 刊)를 펴냈다.

첫 시집이 순수한 감성과 감각으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굴절된 삶의 형태를 표현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삶의 길을 잃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위로하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은 마음을 매개체로 표현했다면, 이번 디카시집은 ‘마주 보는 따스한 눈길 너의 마음이 보인다’는 주제로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는 물질만능의 시대, 인스턴트화돼 가는 일상으로 인해 삶이 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더라도 ‘괜찮다’는 위로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시집은 위로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작가의 섬세한 문체가 발현된다. ‘괜찮아’는 위로를 모토로 작가가 스스로와 독자들에게 전하는 속삭임처럼 이해된다.

작가는 사진과 짝을 맞춰 쓴 시들에서 ‘오늘은/속내를 훌훌 벗어 버리고/푸른 하늘 아래 움켜쥔 버거움도 놓고/마음대로 미쳐본다/노란 웃음와 르르 쏟아질 때까지’(‘무아지경’ 전문)라거나 ‘눈 뜨기 바쁘게/재잘거리는 시간/간헐한 영혼 구하러/파아란 창문 열어/날개짓 퍼득이게 한다’(‘그리움의 저편’ 전문), ‘작은 마음 하나/가슴 꽃 피운다/그 누구에게도 보여 주지 않고/가끔씩 바람결에 떨림 감춘 채/널 기다리며 사랑 품고 맴돈다’(‘수줍음’ 전문)고 각각 노래한다. 기발한 감각에 기대기보다는 평범한 듯한 감각을 통해 속으로 파고드는 울림과 휘발유같은 감각의 소모보다는 긴 여운을 안겨주는 시풍을 구사한다.

작가의 디카시들은 자신이 겪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소중한 대상을 향한 여정을 묘사하고 있는 한편, 다양한 감정과 경험을 함유하고 있다. 작가의 디카시를 역시 사랑을 향한 그리움과 기다림, 그리고 위로의 말을 주요 주제로 다루고 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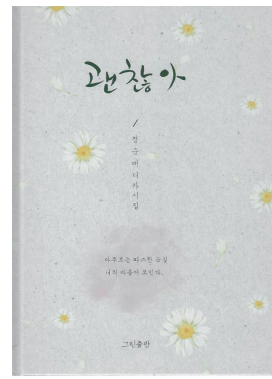


는 종종 고통스럽고 흔들리는 감정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쌓이는 생각과 자기 위안의 과정을 보여주며 지나온 아픔과 변치않는 추억에 대한 성찰도 포함하고 있다. 결국 꾸밈없는 그리움은 물론이고 사랑의 본질과 더불어 새로운 설렘과 희망을 맞이하는 긍정적인 기대감을 담아내고 있다는 풀이다.

이번 디카시집은 ‘봄-낮선 설렘들과 나란히 소풍간다’, ‘여름-그리움에 젖어 서 있는 애처로움이 우산 받쳐 준다’, ‘가을-가다림 태우며 아픈 가슴 토닥토닥 안는다’, ‘겨울-그 자리 그곳에서 기다림 배우며 서 있다’ 등 사계로 나뉜 4부로 구성됐으며, 120편이 넘는 사진과 시 작품이 실렸다.

작가는 머리말을 통해 “사진은 눈으로 보는 숨겨진 예술이지만, 시는 마음으로 읽는 고백이다. 사진 한 장이 말하지 못한 숨결을, 시가 대신 속삭이기를 바란다”면서 “토닥토닥 ‘괜찮아’라는 말을 여러분께 건네고 싶어 여윌었다. 살아가는 길에서 혹시 주저앉고 싶을 때, 잠시 이 책을 펼쳐 사진 한 장을 바라보고, 짧은 시 한 줄을 읽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순간 마음 속 여딘가에 조용히 스미는 온기가 있다면, 그것만으로 이 시집은 제 역



할을 다한 것”이라며 “삶은 늘 완벽할 수 없다. 때론 흔들리고, 때론 젖으며, 때론 부서지듯 힘겨운 시간을 지나간다”고 덧붙였다.

정순애 작가는 사진작가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다방

면에서 재능을 펼쳐 보이고 있다. 개인전 3회와 단체전 300여회에 출품했으며 광주시미술대전 최우수상과 특선 3회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공예사진대전 우수상, 디카시공모전 최우수상 등 다수 수상경력을 자랑하고 있다. 그는 사진 분야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광주지부 부회장과 빛고을사진문화포럼 이사 및 포아트사진동호회 회장 등을, 미술분야에서 한국미술협회 회원 및 추천작가 등을, 문학분야에서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시인협회 회원 등을, 기타분야에서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상무로타리클럽 회장 등을 각각 역임했다. 그는 2011년 월간 ‘문학공간’ 사부문 신인문학상 수상으로 문단에 데뷔, 사진 솜씨 외에 글솜씨도 뽐내고 있다.

이와 함께 디카시집 출간에 맞춰 근래 사진 25점을 출품한 사진전이 지난 17일 개막, 오는 30일까지 동구 금남로 2가 소재 ACC 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열린다.

작가는 전시 노트를 통해 “사진을 찍고 그 내용을 5행 이내 쓴 짧은 시를 디카시라 하는데, 눈앞의 풍경을 담은 사진과 함께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시의 언어를 엮었다. 그렇게 사계절을 따라 걸으며 삶의 희로애락을 디카시로 풀어냈다”고 전했다.

전시에는 실제 사진 작품과 그 작품에 걸맞는 짧은 시가 함께 전시돼 선보이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행복어울림합창단이 들려주는 ‘열정의 하모니’

‘가족사랑 나눔 음악회’ 27일 빛고을시민문화관…40명 무대서 합창

행복어울림합창단이 낭만과 열정의 하모니를 선사한다.

행복어울림합창단(단장 고현덕) 정기연주회 ‘가족사랑 나눔 음악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사)광주시행정회(회장 강왕기) 단체 중 하나인 행복어울림합창단 주최, 광주시행정동우회 후원으로 이뤄지는 이번 무대에는 행복어울림합창단 구성원 40명이 무대에 오른다. 지휘자는 황성철, 반주는 김은옥이 각각 맡고, 소프라노 원소희, 바리톤 조재경, 신디 정호인, 바이올린 배하림, 플루트 지아셀, 첼로 조혜원, 드럼 신보영 등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한다.

무대는 널리 알려진 뮤지컬 넘버와 가족 사랑, 기쁨과 희망 등 세 가지 테마로 꾸며진다.

먼저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주제가 ‘The Phantom Of The Opera’로 포문을 연다. 이어 ‘Think Of Me’와 ‘Angel of Music’, ‘All I Ask Of You’, ‘Wishing you were somehow here again’, ‘The Point of no return’ 등이 울려 퍼진다.

가족 사랑 테마에서는 ‘엄마’(신상우 곡)를 비롯해 ‘마중’(윤학준 곡), ‘가족이라는 이름으로’(신상우 곡) 등 시와 음악을 어우러진 작품이 무대를 채운다. 기쁨과 희망 테마에서는 ‘노란사쓰의 사나이’(손석우 곡)와 ‘편이야’(김지환 시·곡), ‘살이 그대로 속일지라도’(김효근 시·곡) 등 친숙한 곡들로 흥을 돋운다.

아울러 인씨에메(INSIEME)창창단이 특별출연해 ‘인생’(신상우 곡)과 ‘아직도 내겐 음악 있어’(Don Besig 곡), ‘친구이야기’(김용원 곡) 등을



부르며 중후한 화음을 전한다.

고현덕 단장은 “행복어울림합창단은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자 한 단원들의 진심과 헌신이 있었다”면서 “오늘 공연이 단순한 음악회를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함께 ‘어우러진 행복’으로 오래동안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ACC, 뉴스트로 지역 작가 전시 넓힌다

문화전당, 30일까지 예술인 공모

내년 개관 복합전시7관 전시 지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전당장 김상욱)이 지역 작가 창작활동 지원 프로그램인 ‘2026 ACC 뉴스트(NewST)’에 참여할 전시 작가를 오는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뉴스트’는 새로움을 뜻하는 ‘New’와 예술가 ‘Artist’의 합성어로, ACC가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기획한 지역 작가 지원 프로그램이다. ACC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의 창작활동 및 전시 지원을 위해 오는 2026년 1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전시관인 복합전시7관을 문화창조원 내 새로 개관한다. 복합전시7관은 약 132㎡ 규모로, ACC 광장에서 제일 처음 관람객과 만나는 전시장이기도 하다. ACC는 이곳에서 매년 5회 정도 지역 기반 예술인들의 다양한 전시를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광주·전남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작가(개인 또는 팀)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대상 분야는 시각·평면예술(회화, 판화, 사진, 서예, 일러스트레이션 및 그래픽 등)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시로 펼칠 수 있으면 된다.

ACC는 1차 서류심사, 2차 작가발표를 거쳐 오는 12월 ‘뉴스트’ 최종 참여자를 선별한다. 선정된 작가에게는 전시 공간(복합전시7관) 및 창작비,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2026 ACC 뉴스트’ 전시는 내년 3~8월 중 복합전시7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김상욱 전당장은 “지역 작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다”면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이는 복합전시7관이 역량 있는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참여 신청은 ACC 누리집(www.acc.go.kr)에서 회원가입 후 지원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클래식 기타와 오케스트라 선율의 조우

광주시향, 26일 예술의전당 소극장
박규희 협연…줄리아니 곡 등 선사

클래식 기타가 들려주는 섬세한 선율과 깊은 울림, 부드러운 서정과 격정이 어우러져 고전 음악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한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오는 26일 오전 11시와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오티움 콘서트V ‘Guitar’를 선보인다.

올해 마지막 오티움 콘서트에서는 나일론 6현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소리를 내는 클래식 기타 선율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연주회는 이병욱 예술감독이 지휘와 해설을 맡고, 기타리스트 박규희가 협연한다.

공연의 포문은 이탈리아 출신 기타리스트이자 작곡가인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1번 A장조 op. 30’이 연다. 기타를 주역으로 끌어올린 대표적 협주곡으로, 세련된 고전주의 양식 속 줄리아니 특유의

섬세한 감성이 녹아 있으며 현악 오케스트라와의 균형감 있는 대화가 돋보인다. 1악장의 경쾌한 리듬과 2악장의 서정적 선율, 3악장의 경쾌한 기교는 기타의 다양한 매력을 접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무대를 채울 박규희는 특유의 정교한 터치와 감성으로 기타의 풍부한 표정을 들려줄 계획이다. 알람브라 국제 콩쿠르 등 9개의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연주자로, 특히 벨기에 프랭캥 국제 기타 콩쿠르에서 최초의 여성·아시아인 우승자로 이름을 알렸다. 후반부에는 모차르트의 ‘교향곡 40번 G단조 K.550’이 이어진다. 이 작품은 간결한 주제와 절제된 긴장감 속에서 모차르트 후기 특유의 내면적 정서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입장료는 S석 2만원, A석 1만원.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기타리스트 박규희

국립광주과학관, 수능 수험생들 연말까지 무료입장

12월31일까지 이벤트…인공지능관 등 3곳 기념품 증정도

국립광주과학관(관장 이정구)은 2026학년도 수능시험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과학관 안 갈 수는 없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들의 긴 시험 기간을 위로하고, 성인 대상 과학문화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수능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이 과학관 방문할 경우 트리플 패스와 함께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특별전 입장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고등학교 3학년 학교단체 관람객의 경우 인솔자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벤트는 과학관 정문 매표소에서 수험표 및 신분증 확인 후 제공된다. 트리플패스를 이용하면 본관 상설전시관, 인공지능관, 어린이과학관 등 과학관의

주요 전시관 3곳을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또한 수험생은 오는 28일 개막하는 기후 및 멸종위기 특별전 ‘위기의 지구, SOS’를 50% 할인된 가격(할인가 3000원, 20인 이상 단체 25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김승미 국립광주과학관 홍보협력실 행정원은 “국립광주과학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월 과학의 달, 5·18민주화운동 기념일, 광복 80주년 광복절 등 주요 기념일을 맞아 무료입장 이벤트를 운영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며 “이번 수능 이벤트를 통해 수험생들이 과학관에서 즐거운 추억을 쌓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열린 과학관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정재경 기자